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 “안전” 최우선 관리로 무재해 건설현장 조성에 총력 -

김유인 | 기사입력 : 2025/10/28 [15:58:00]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전지영 영암지시장 = 앞줄 좌측 네 번째)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전지영)는 10월 29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관리감독자 및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및 수급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중대재해 사고 사례 및 근절을 위한 안전 종합대책 전파 ▲전남 지역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 공유 ▲작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중요성 당부 ▲KRC-EVERY 안심일터 추진방안 공유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 안내 ▲안전시공을 위한 협조 및 건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참석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이고 안전시공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지영 영암지사장은 “급수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하는 시기인 만큼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무재해 현장 조성 and 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일보 이 기사 주소 : <http://www.xn--6e0bx9yjva78vyyac9d.kr/5705>
